

## 강애란 개인전 The Luminous Poem

일정: 2011.4.28(목) - 5.29(일)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강애란개인전\_The Luminous Poem)



책은 문화와 지식의 대표적 매체로 시대를 아우르며 존중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문화가 활자 문화를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 책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 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작가 강애란에게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진척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갤러리 시몬에서는 책을 소재로 빛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여온 미디어 아티스트 강애란의 개인전 'The Luminous Poem'전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세비아 비엔날레, 세계적 미디어 미술관인 독일 ZKM 등 해외 유수의 아트센터에 초대되어 국제적인 평가와 더불어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 강애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디지털 북 프로젝트(Digital Book Project)를 비롯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북-The Luminous Poem, 페인팅 작품 등 작가의 최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애란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 후 일본 다마 미술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비롯해 서울국제판화 비엔날레 대상, Tokyo-마찌다 국제판화전 매상상, 석남미술상을 수상하였다. 2010년 뉴욕 브라이스 월코비츠 갤러리(Bryce Wolkowitz Gallery)에서의 개인전 'Light Reading'을 비롯하여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개인전과 단체전, 국제전에

참가하며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작가의 작품은 2009년 독일 ZKM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

작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빛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작업들은 이미지 분화가 발생시키는 현실과 가상에 대한 탐구의식이 중요한 이슈를 이루고 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식을 상징하는 책과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한 세간과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성찰로 디지털 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을 통해 공개되는 인터랙티브 북-The Luminous Poem 은 작가의 기존 디지털 북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발전된 공간을 구현해 내고 있다. 인터랙티브 북-The Luminous Poem 은 책의 형태로 제작된 네비게이션 공간이며, 공간을 감상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라이팅 북이 사용된다. 시(Poem)라는 주제로 작가에 의해 선택된 책은 존 밀턴(John Milton), 랄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카렌 탐슨(Karen Tompson), 제임스 필즈(James T. Fields), 에드가 알렌 포우(Edgar Allen Poe),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로드 바이런(Lord Byron), 존 키츠(John Keats) 이다. 관객은 빛나는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 순간 공간은 책 그 자체로 탈바꿈하며 관객은 자신이 가상현실의 공간 혹은 정보의 공간 안에 있는 듯한 체험을 한다. 이로써 작가는 수동적 관찰자인 관객에게 능동적 참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관객은 작품을 완성하는 하나의 미디어가 된다.

책은 그저 물건이 아닌 하나의 공간이며 시간이다. 강애란 작가의 작품은 단순히 오브제로서의 물질적인 개념만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비물질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빛을 통해 새로운 공간의 존재성을 더욱 구체화하며 송고한 빛을 통한 극적 효과를 구현해나가고 있는 작가 강애란의 다음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여 더욱 기대되는 작가이다.